

사회

할머니 죽음 부른 '복지사각'

출가 딸 소득 있어 기초생활수급 탈락 새벽 폐지 주으려다 80대 교통사고 사망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온 80대 할머니가 8일 새벽 일거리를 찾으러 집을 나섰다 택시에 치여 숨졌다. 이 할머니는 최근 영세계층이 너도나도 폐지 줄기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허드렛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북부경찰청은 8일 "이날 새벽 5시30분께 택시운전사 김모(50)씨가

광주시 북구 각화사거리에서 동광주 톨게이트 방향으로 가던 중 길을 건너던 변모(81)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변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광주시 북구 각화동 영구인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변 할머니는 늦게 가던 도매시장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두컴컴한 새벽에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운전사 김씨의 차

량용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문화동주민자치센터와 이웃 등에 따르면 2010년까지 변 할머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들(42)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살다가 아들이 가솔하고 출가한 딸의 소득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후 출가한 2명의 딸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변 할머니는 폐지 줄기, 청과물 정리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운전사 김씨의 차

상태였다.

변 할머니와 가깝게 지냈다는 같은 아파트 주민 박모(78)씨는 "아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정이 많고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라며 "일하러 가던 길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니 너무 불쌍하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수급 중지된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2307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대상자의 사망, 군입대,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수급이 중지됐으며,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수급자 구제 민원이 잇따르자 재심 등을 거쳐 1000여 세대를 복귀시키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8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에 나선 119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끄고 있다.



쌍촌동 음식점 화재

8일 오전 8시4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성모(52)씨의 음식점에서 불이 난 것을 인근 아파트 주민 A(62)씨가 발견, 119 등에 신고했다.

이날 불은 음식점 150㎡를 전부 태워 소방서 추산 4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씨는 "전날 밤 9시40분께 음식점 문을 닫고 화장실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날뛰는 가짜 친환경 농산물

양파·새송이 버섯 등 허위 표시해 납품 친환경 수사권 확보 후 5명 첫 형사 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이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유통한 업체 대표 5명을 형사 입건했다. 농관원이 지난 4월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규정한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한 이후 전국 처음 사례다.

8일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단체급식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공급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납품한 장모(52)씨 등 3명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배모

(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무안군 A법인 대표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전북 일산산양파 22.6t(1880만원 상당)을 무안산 친환경 무농약 인증농산물로 속여 전남지역 단체급식 인증품 공급업체 5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군 B농원 대표인 배씨는 일반 양파 3t를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975만원 상당의 새송이 버섯 3000kg을 무농약 친환경 인증품으로 허위 표시해 광주지역 한 도매시장에 판매한 혐의다.

농관원은 수사권 확보 이후 그동안 경미했던 친환경 위반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4월18일 이전 농관원 전남지원에 적발된 친환경 위반 사범 22명 중 18명은 벌금형에 그쳤고, 나머지 4명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홍기자 song@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환경 인증품으로 허위 표시해 광주지역 한 도매시장에 판매한 혐의다.

농관원은 수사권 확보 이후 그동안 경미했던 친환경 위반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4월18일 이전 농관원 전남지원에 적발된 친환경 위반 사범 22명 중 18명은 벌금형에 그쳤고, 나머지 4명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홍기자 song@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짜라는 말에 그만...”

농업보조금 부당 수령 시설원예농 50명 범정에

“할 말이 없어요. 공짜로 보일러 설치해준다는 말에 그만...”

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402호 소법정에 무려 54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모두 앉을 수 없어 일시의자까지 마련됐다.

재판이 시작된 뒤 형사1단독 장철이 판사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일일이 불러 참석 여부를 살피는데 20여 분, 검찰의 공소 사실 설명에 10여 분 등이 걸렸다.

이들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만 5명이 나섰다. 이들은 보일러설치업자와 광주·강진·영광·화순·무안·목포·인천·정읍 등지에서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평범한 농부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과 관련 이들 업체들은 농민 50명에게 직접 부담해야할 보일러 설치비의 40%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을 내걸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설치비의 60%를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해줬다.

농민들은 공짜로 보일러를 받으면서 1인당 1700만~82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업체들은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 21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가뜩이나 연료비 문제로 고민하던 농민들은 쉽게 업체들의 사기 행각에 발을 들여놓았고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범정에 섰다. 굶게 패인 주름과 검게 그을린 농민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등과 관련 국고보조금 편취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단골 가게서 ‘슬쩍’

레저용품 훔친 강사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8일 고가의 스노보드 용품을 훔쳐 동호회원 등에게 한 혐의(절도)로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스노보드 강사인 김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140만원 상당의 고글 4개 등을 몰래 들고 나오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의 스노보드 용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각각 2~4건의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근절 안되는 아동 음란물 유통

여수경찰, 7명 검거

실시간 네트워크(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남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필터링 기능이 없는 P2P 프로그램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무작위로 유통되고 있지만 경찰은 인력과 지역적 거리 등을 이유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여수경찰은 8일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최모(32·무직)씨 등 7명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각각 2~4건의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수백건의 음란물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버를 둔 일반 웹사이트 방식과 달리 필터링 기능이 없는 토렌트에서는 국내외 불법 음란물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돼 음란물 단속의 사각지대가 돼왔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위해 포한 최모(32·무직)씨 등 7명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각각 2~4건의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대부분의 컴퓨터에는

“사이 공연 지원 박원순 고소”

○박원순 서울 시장이 가수 사이(박재상·35)의 지난 4일 서울광장 무료공연을 지원했다가 시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될 처지.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고희정(여·33)씨는 사이의 서울광장 공연을 위해 서울시가 무명 예술인들 공연을 일반적으로 취소했다며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9일 고소하겠다고 8일 예고.

○고씨는 “본래 서울광장에서 공연하기로 돼 있던 공연팀은 멀리 스페인에서 왔는데도 공연을 취소당했다”며 “성공한 단 한 명을 위해 열세 4억원까지 들어가며 이런 차별적 특혜가 이뤄져야 하느냐”고 비판.

○박원순 서울 시장이 가수 사이(박재상·35)의 지난 4일 서울광장 무료공연을 지원했다가 시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될 처지.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인 고희정(여·33)씨는 사이의 서울광장 공연을 위해 서울시가 무명 예술인들 공연을 일반적으로 취소했다며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9일 고소하겠다고 8일 예고.

○고씨는 “본래 서울광장에서 공연하기로 돼 있던 공연팀은 멀리 스페인에서 왔는데도 공연을 취소당했다”며 “성공한 단 한 명을 위해 열세 4억원까지 들어가며 이런 차별적 특혜가 이뤄져야 하느냐”고 비판.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뻘개물 잘 맑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항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삼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원의 이항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항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호

절반만 결제해도 여행가능

목돈없이 떠나는~ 내맘대로 여행. 2012상반기 베스트 히트상품

가슴 뛰는 삶의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후불제여행을 경험 해보자.

해외여행 1000만명 시대 목돈이 없어 여행을 망설이신다면 여기 후불제투어 여행적금을 적극 이용하세요. 가족단위, 산악회, 단체, 직장, 성지순례, 골프, 신혼 목돈없이 계획대로 여행할수 있습니다.

후불제투어 특징

- 후불제여행은 매일 일정 금액을 6개월 납입후 여행을 다녀온 후 여행잔금을 매일 일정금액 나머지 금액만큼 납부하는 획기적인 후불제여행 시스템입니다.
- 하나투어·모두투어 원하는 여행상품을 마음대로!
- 알도알수가 가능합니다(1인1구좌에 한함)
- 여행금액을 다 지불하고 가는 여행이 아니므로 최상의 고객만족을 실현시켜드립니다.
- 만기시 100% 환급가능합니다.

책임감 있는 진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NO!!

회원가입 월 회비 적립금 최대 360만원까지	월 회비 금액 40,000원 60,000원 120,000원	회비선택하신후 6개월 적립후 여행가능	상품 선택후 고객센터예약	적립금액+ 지원금액 목돈 없이 여행	여행후 잔금적립후 계약만료
--------------------------	----------------------------------	----------------------	---------------	---------------------	----------------

신뢰의 1위기업 후불제여행사, 후불제 여행만의 신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직접 경험 해보세요.

(주) 후불제투어 www.hubuljetour.co.kr

회원가입 및 상담문의 1577-5978

※ 고객의 회비는 공경위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지정은행에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공경위 할부거래법 2010년 9월 18일 법 시행

지사/영업직모집

- 퇴직자, 주부사원, 일반, 재택근무
- 지사모집: 소지본 무경력, 여행사 운영가능합니다. (법인설립비용없음)